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대한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반응 비교 연구: 인물 구현에 대한 오역·의역을 중심으로*

이 지 민
(계명대)

1. 서론

데보라 스미스(Deborah Smith)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한 *The Vegetarian*은 2016년 세계 3대 문학상인 맨부커 인터내셔널상을 수상했으며, 같은 해 한국문학번역원의 한국문학번역상을 수상함으로써 국내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이면에 스미스의 번역이 다수의 오역과 의역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연세대 국문과 정과리 교수는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스미스가 원문의 일부 단어를 생략하고 원문에는 없는 영어 문장을 새로 만들어 넣으로써 한글 원작을 훼손한

‘창작’을 수행했다고 비판한다(중앙일보 2017. 1. 10). 고려대 불문과 조재룡 교수(2017)도 『채식주의자』의 불어본과 영어본을 비교해 영어본에서는 곳곳에 엉뚱한 번역이 발생해 인물의 성격이 달라졌다고 지적하며 오역과 자의적인 의역을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번역자의 한국어 미숙이나 단순 실수로 인한 오역을 제외한 의도적 오역 또는 의역의 경우 단편적 또는 미시적으로 지적만 하고 그치는 것은 향후 한국 문학 번역의 미래를 고려할 때 아쉬운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번역 비평의 범위를 확장해 이러한 의역이 실제로 해당 언어 작품을 소비하는 독자 경험 측면의 작품 감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번역 시 고려해야 할 점을 논의하는 등 생산적인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효과의 등가 관점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와 스미스의 *The Vegetarian*의 인물 묘사 관련 오역 또는 의역이 한국어와 영어 독자들에게 어떻게 수용되는지를 비교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스미스의 개입과 의역·오역

스미스의 *The Vegetarian*에 나타난 번역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자들이 과도한 개입을 비판한다. 이강선(2016: 307)은 스미스가 원본(ST)에 심각하게 개입해 번역함으로써 ‘두 권의 서로 다른 『채식주의자』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김대중(2016: 41-45)은 스미스의 번역에 ‘상당히 많은 오역 혹은 과도한 의역 사례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영미권 독자들이 한국 독자와 전혀 다르게 작품을 이해할 소지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김대중(2016), 조재룡(2017), 이인규(2017) 등은 다양한 오역 또는 과도한 의역 사례들을 자세히 열거했다. 스미스의 번역에 발견되는 의역 사례로는 원문 변경뿐 아니라(이인규 2017; 조재룡 2017), 생략¹⁾, 압축, 첨가, 확장, 어구나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5A8022161)

1) 언어학적 관점에서 생략과 삭제는 차이가 있다. 동일성 조건을 충족하거나 복원 가능하거나,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는 정보가 사라진 경우는 생략으로 정의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삭제로 정의한다(박윤철 2008; 2017). 그러나 번역의 경우 생략과 삭제의

문장의 자유로운 재구성 등이 있다(이인규 2017: 179). 그리고 이러한 개입으로 인해 스미스의 번역(TT)에서는 ST에 등장하는 ‘인물’, 특히 주인공 영혜와 장모, 영혜 남편(정서방)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물은 플롯, 배경과 함께 소설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소설의 주제와 정서 구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위대한 소설 대부분은 인물을 탐구하기 위해 존재하는데(Harvey 1968: 23)²⁾, 이러한 인물은 그 사람의 이미지, 행동, 사고방식, 감정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Thrall & Hibbard 1936: 74-75; Chatman 1978: 107 재인용).³⁾

기존 연구에 따르면 ST의 소극적인 영혜의 성격이 TT에서 적극적으로 변했고, TT에서는 영혜 남편(정서방)의 이기적이고 가부장적인 성격, 남들을 의식하는 성격 등이 잘 드러나지 않았으며(조재룡 2017: 16), 소극적인 장모는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는 장모로 인물 성격이 왜곡되었다(김대중 2016: 44; 조재룡 2017: 17). 아울러 삭제된 주변 인물 감정의 단순화(이지민 2018), 색깔 변경/유지를 통한 정서의 변경(원종화 2017)이 문제 또는 현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 및 삭제 등의 의역이 실제로 독자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를 검증하거나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례가 색채 번역(원종화 2017) 외에는 없어 독자 반응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2 효과의 등가와 독자 반응 연구

에이블링(Aveling 2003: 1-12)은 오역의 종류를 ‘멍청한 실수(dumb mistakes)’와 ‘의도적 실수(deliberate mistakes)’로 나누고 있는데, 단순 오역이나 언어 장악력 부족으로 인한 오역을 제외한 ‘의도적’ 오역은 넓게 보면 의역(free translation)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번역에 있어 의역과 직역에 대한 논쟁은

기원전 1세기 키케로(Cicero)와 4세기 말 성 제롬(St. Jerome)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Munday 2008: 30). 당시에는 ‘단어 대 단어(word for word) 번역’과 ‘의미 대 의미(sense for sense) 번역’으로 구분해 직역과 의역 번역 방법을 논의했다. ST가 신의 말씀을 전하는 성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기에 ST의 지위가 절대적이었으며 최종 소비자인 독자에 대한 고려는 적었다. 19세기 슈라이어마허(Schleiermacher)에 이르러서야 독자가 번역 전략 고려사항에 포함되기 시작했는데, 슈라이어마허는 저자를 제자리에 두고 독자가 저자에 접근하는 방식, 또는 독자를 제자리에 두고 저자가 독자에 접근하는 방식을 제안했다(Schleiermacher 1813/1992: 41-32). 그러다가 1960년대에는 메시지의 수용자인 독자에게로 관심이 본격적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등가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번역을 ‘동일 언어 간 번역(intralingual translation)’, ‘다른 언어 간 번역(interlingual translation)’, ‘기호 간 번역(intersemiotic translation)’으로 분류한 야콥슨(Jacobson 1959/2000: 114)은 다른 언어 간 번역은 ‘한 언어의 메시지를 개별 기호 단위가 아닌 다른 언어의 메시지 전체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설명함으로써 메시지의 등가 또는 의미의 등가를 강조했다. 나이다(Nida 1964: 159)는 번역에 있어 ST 지향적 번역인 ‘형태적 등가(formal equivalence)’와 TT 지향적 번역인 ‘동태적 등가(dynamic equivalence)’를 제시한다. 나이다는 형태적 등가를 지향한 번역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역주를 단 번역을 든다. 반면 동태적 등가는 이른바 ‘효과의 등가 원칙(principle of equivalent effect)’에 기반하고 있으며, TT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의 관계는 ST 수용자와 메시지 사이의 관계와 근본적으로 동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Nida 1964: 159). 효과의 등가가 달성되었는지는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해 파악한다.

- (1) 말이 될 것(making sense)
- (2) 원문의 정신(spirit)과 양식(manner)을 전달할 것
- (3) 표현이 자연스럽게 편안한 형태일 것(natural and easy form of expression)
- (4) 동일한 반응(response)을 생산할 것 (Nida 1964: 164)

여기서 주목할 것은 바로 (4)번으로, ST 독자와 TT 독자의 반응이 동일하여야 효과의 등가가 달성된 것으로 본다. 즉 ST의 효과가 TT에도 구현되었는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있고, 실제로 선행연구에서도 이 두 용어를 혼용하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도 생략과 삭제를 혼용해 사용하기로 한다.

2) “I shall concentrate on character since most great novels exist to reveal and explore character.”
3) “The depicting, in writing, of clear images of a person, his actions and manners of thought and life. A man's nature, environment, habits, emotions, desires, instincts: all these go to make people what they are, and the skillful writer makes his important people clear to us through a portrayal of these elements.”

지의 여부는 독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다의 이러한 동태적 등가는 뉴마크(Newmark 1981)의 ‘소통적(communicative) 번역’과 맥락을 같이 한다. 여기서 TT 소통의 대상은 독자이며 TT 독자의 중요성에 대해 나이다와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외에도 번역은 독자들이 기대하는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체스터만(Chesterman 1997: 64)의 ‘기대규범(expectancy norms)’, 독자를 고려한 번역의 목적을 중시하는 ‘스코포스 이론’ 등이 독자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스코포스 이론가 중 하나인 라이스(Reiss 1977/89: 108-109)는 텍스트를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텍스트인 정보적 텍스트, 창조적 작문 텍스트인 표현적 텍스트, 행위적 반응을 유발하는 작용적 텍스트로 나누고 각각 다른 번역 방법을 제시했다. 이 중 ST의 저자가 언어의 미학적 차원을 활용하는 표현적 텍스트의 경우는 ST 중심 번역을 제시했다. 즉, 시 등의 문학 번역은 ST 중심 번역을 수행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ST 문학의 효과가 TT 독자에게도 전달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하며 독자들이 원하는 것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독자 반응 연구는 언론 보도, 판매 부수 및 도서 게시관 상의 독자 반응 등을 통해 개략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텍스트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 연구를 위해서는 실제 독자와 접촉을 해 질문을 하고 답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도서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자기 생각을 적어 내게 하거나 인터뷰를 할 수 있으며, 독자가 도서를 읽는 과정에서 사고 기술(TAP: Think Aloud Protocol) 방식을 적용해 생각을 읽어내도록 할 수도 있다(Beach & Hynds 1996). 이러한 방식은 깊이 있는 응답을 얻을 수 있기는 하나 시간 소요가 너무 많고 과정이 복잡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가 선호된다(Lee 2011). 실제로 『채식주의자』의 ST와 TT에 나타난 색채에 대해 한국어와 영어 독자가 느끼는 감정을 개별 인터뷰를 통해 밝힌 연구(원종화 2017)는 ST 독자 3명, TT 독자 3명에게 해당 도서를 완독하게 한 후 회상적으로 심층 면접을 실시했고 1인당 최소 3시간이 걸렸다.

이외에 문학작품에 대해 실제 인터뷰나 설문을 통해 독자 반응 연구를 실시한 국내 연구는 아동문학의 한국어 번역에 대한 어린이 독자 반응 설문조사(김도훈 2005), 이상의 『날개』에 나타난 인물 성격이 ST와 TT에서 달리 나타나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한 연구(Lee 2011)가 있다. 김도훈(2005)은 한국

어를 모국어로 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TT에 대해서만 설문을 수행했고, Lee(2011)는 한국어와 모국어가 둘 다 능통한 응답자에게 ST와 TT 지문을 함께 제공하고 비교하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ST 독자와 TT 독자에 전달되는 효과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가능하면 그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ST 독자와 TT 독자를 따로 모집하되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자 한다.

3. 비평가 면담 및 독자 설문

3.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인물 묘사와 관련해 연구자와 비평가들이 ST와 TT 간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들 또는 견해가 서로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들의 반응과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들의 반응을 설문조사를 통해 비교함으로써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한다.

3.1.1 설문 작성

먼저 ST와 비교해 TT에서 한국어의 미숙함이나 단순 부주의가 원인임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나는 오역(‘멍청한 오역’)을 제외하고 변경, 삭제, 추가(명시화 포함) 등 의도적으로 보이는 의역을 전수 파악했다. 이 중 선행연구에서 문제로 지적된, 영혜의 성격, 장모의 성격과 장서 관계, 기타 등장인물 감정 등의 변형, 삭제 또는 추가가 포함된 텍스트를 대상으로 독자 설문조사에 적합한 텍스트를 선별했다. 설문조사를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해 독자들의 대답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는 부분인면서 분량이 길지 않고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이 과정을 거쳐 선별된 지문을 영문학을 전공한 문학/번역 전문가 3인에게 ST와 TT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물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들 3인 모두 현재 영어 문학 번역 비평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 명은 번역 10년 이상이고 나머지 두 명은 각각 문학 비평 4년, 10년의 경력이 있다.

과악하려는 내용이 모호하다는 응답을 전문가로부터 받은 지문을 제외하고 한국어와 영어로 독자용 설문지를 작성했다. 독자용 설문 작성을 위해 한국인 일반 독자 3명을 대상으로 각각의 지문에서 느껴지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태, 감정을 표현해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비평가로부터 받은 지문 간 차이점 내용과 함께 선택지를 완성했다. 독자용 설문지의 경우 해당 도서를 완독한 독자 비중이 작을 것으로 예상하고 완독한 독자와 그렇지 못한 독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설문지 제일 앞에 간단한 줄거리를 제시하고 아래 [예문 1]처럼 지문마다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응답자들에게는 선택지를 ‘모두’ 고르게 한 후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물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응답자가 왜 그러한 대답을 했는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영어(TT) 설문도 동일하게 작성했다. 아래 [예문 1] 외의 설문 내용은 지문이 긴 관계로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함께 제시하기로 한다.

[예문 1]

다음은 영혜가 자살 소동을 벌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의 이야기이다. **혜** **엄마(회사 장모)**가 면회를 와서 딸 **게** **무엇** **먹을지** **문고** **매점으로** **는** **내용** **니** .

“뭐 먹고 싶냐. 입가심으로 단것 좀 사 올까?”
 “괜찮아요.”
 그러나 장모는 매점이 어디인지 나에게 묻곤 황황히 병실을 나섰다.

1.1. 위에서 느껴지는 영혜의 엄마(장모)의 성격을 묘사해 주십시오.

- ① 딸을 사랑함
- ② 고집있음
- ③ 사위를 어려워함
- ④ 사위를 어려워하지 않음
- ⑤ 기타 ()

1.2. 왜 위와 같이 답하셨나요?

()

3.1.2 설문 대상

작성된 설문지는 선별된 그룹에 배포되었다. 문학 독자 연구에서 이상적인 독자는 텍스트를 구성하는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으며(competent speaker), 텍스트 이해에 필요한 완전한 어의적 지식(semantic knowledge)과 문학적 능력(literary competence)을 갖춘 독자(Fish 1970: 145)라는 점을 반영해 응답자를 선별했다.

TT 설문지의 경우 반드시 영어를 모국어로 하며 설문지 구체적으로 답할 수 있을 정도의 지적 지식을 보유한 응답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들을 통해 ETS 직원, 코넬대학교 학생 및 교수 등을 대상으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에게만 설문지를 배포하도록 했으며, 국내에서는 영어/영문학을 전공한 미국인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ST 설문지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생으로서 영문학을 전공하는 학부생, 영문학이나 통번역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또는 졸업생에 배포했다. 이메일과 대면으로 답변을 수집했으므로 해당 답변이 미흡하거나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메일을 보내거나 다시 만나 설문 보완을 요청했다. ST 독자 설문지는 총 35매, TT 독자 설문지는 총 37매를 수집했다.

응답자 구성을 살펴보면, ST 독자의 경우 20대가 10명, 30대가 18명, 40대가 7명이고, TT 독자의 경우 20대가 8명, 30대가 15명, 40대가 9명, 50대가 5명이었다. 구성 비율로 볼 때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모두 10대는 없으며 30대가 가장 많고 분포도 유사했다. 단, 한국어 독자는 20대가, 영어 독자는 40대가 두 번째로 많았다.

〈표 1〉 언어별 독자 구성

	한국어(ST) 독자(%)	영어(TT) 독자(%)
10대	0(0.0)	0(0.0)
20대	10(28.6)	8(21.6)
30대	18(51.4)	15(40.5)
40대	7(20.0)	9(24.3)
50대	0(0.0)	5(13.5)
합계	35(100.0)	37(99.9) ⁴⁾

『채식주의자』 독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ST 독자는 전권을 읽은 독자가 15명, 하나도 읽지 않은 독자가 11명, 일부 읽은 독자는 9명이었다. TT 독자의 경우 안 읽은 독자가 35명, 읽은 독자가 1명, 일부 읽은 독자가 1명이었다.

3.2 설문 결과

동일한 지문에 대해 비평가 의견과 독자 반응을 수집했으므로 설명의 경제성을 위해 본고에서는 지문을 먼저 제시하고 해당 예문에 대한 비평가 의견, 독자 반응 순으로 설명하도록 한다. 예문에 표기된 실선은 ST와 TT 간 차이가 있는 부분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밑줄은 본고 독자를 위해 연구자가 표기한 것으로, 실제 독자 설문에는 표기하지 않았다. 지문도 본고 독자를 위해 양 언어 지문을 병렬로 제시했을 뿐이며, 설문조사 시에는 ST 독자에게는 한국어 지문만을, TT 독자에게는 영어 지문만을 제공했다.

3.2.1 의역 및 오역: 변경

[예문 2]

다음은 영혜가 채식을 시작하게 된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녀가 한 중에 부엌에서 냉장고를 바라보 있고 남편은 그 이유를 다그친 후입니다.

처음 보는,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으로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꿈을 꿴어.”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다.

“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이 몇 시야, 대체”

그녀는 나에게서 몸을 돌려, 문이 열려 있는 안방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뺀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

I took in her eyes, bright but not feverish, as her lips slowly parted.

“I had a dream.”

Her voice was surprisingly clear.

“A dream? What the hell are you talking about? Do you know what time

it is?”

She turned so that her body was facing me, then slowly walked off through the open door into the living room. As she entered the room she stretched out her foot and calmly pushed the door to close.

<비평가 의견>

비평가에 따르면 ST의 경우 “처음 보는”이 익숙하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고 “냉정하게 번쩍이는 눈”은 광기가 느껴지고 약간은 섬뜩한 느낌으로 영혜에게 큰 변화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남편에게서 “몸을 돌려” 다른 방으로 가는 것은 어떤 생각에 몰두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는 것으로 보아 영혜가 세상과 자신을 단절시키는 느낌이 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TT는 “처음 보는”이 생략되고 “번쩍이는”이 “bright but not feverish”로 표현되어 광기는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영어의 경우 ‘발’로 문을 닫았기에 영혜의 성격이 약간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라는 답변이 있었다. 이를 반영해 [설문 1]의 보기를 제시하였다. () 속의 숫자는 독자 응답으로서 각각 순서대로 ST 응답자 수, TT 응답자 수를 나타낸다.

<설문 결과>

[설문1]

위에서 느껴지는 영혜의 상태와 성격을 모두 고르세요.

- ① 광기 (17, 6)
- ② 의지가 강함 (11, 23)
- ③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음 (31, 15)
- ④ 폭력성이 있음 (1, 0)
- ⑤ 기타 (0, 11)

ST 독자의 경우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음’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기’가 두 번째로 많았다. ‘한밤중에 냉장고를 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거나 지문의 “반짝이는 눈”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TT 독자는 의지가 강하다는 선택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다는 의견이 15명으로 두 번째 많았다. 독자들은 남편을 정면으로 바라본다거나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걸어가 버린 점이 강한 의지를 설명한다

4)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결과를 더한 것이라 총합이 100이 되지 않았다.

(“She ignored his question and walked away. This is indicative of determination”)고 설명했다. ST에서는 영혜가 화자에게서 몸을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TT에서는 화자 쪽으로 몸을 돌려 화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오역이 되어 있는데 이 오역으로 인해 독자가 영혜의 성격과 상태를 다르게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광기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한 독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 이유로 영혜가 ‘조용히’ 문을 닫았기 때문(‘calmly’ pushed the door to close)라고 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영혜가 정신적으로 아프거나 몽유병, 아직 잠이 덜 깬 상태(mental illness, sleep walking, dreamlike state)라는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오역 또는 의역으로 인해 ST 독자와 TT 독자 간 영혜의 성격과 상태에 대한 이해에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이 마침 ‘멍청한 오역’(‘팔’을 ‘foot’로 번역)으로 학자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추가적으로 해 보았다.

(설문 2)

위의 문장 중 “문턱을 넘자 팔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면 영혜의 상태나 성격이 차이가 있게 느껴질 것 같습니까? 5)

문턱을 넘자 발을 뒤로 뻗어 조용히 문을 닫았다.6)

- ① 그렇다 (18, 6)
- ② 아니다 (7, 24)
- ③ 기타 (0, 2)

5) 영어 질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Do you think the characteristic of Yeong-hye would change if the underlined part above is changed to the following?

As she entered the room she stretched out her arm and calmly pushed the door to close.

6) 해당 질문은 설문조사 실시 후 추가로 별도 이메일을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일부 발생했다.

흥미롭게도 ST 독자의 경우 ‘그렇다’는 답변이 응답자의 72%를 차지한 반면, TT 독자의 경우 ‘아니다’라는 의견이 75%를 차지했다. ST 독자는 발을 사용하는 경우 귀찮음, 기분이 나쁨, 조심스럽지 않음, 게으름, 덤벼거림, 발랄함, 대담함, 폭력성 등이 느껴지며, 결과적으로 ‘더 제정신일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아울러 발로 문을 닫는다는 행위는 의식이나 의지력이 필요한 것으로 느껴진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다른 한 응답자는 “손에 땀 가득 들고 있는 경우 외에는 발로 문을 닫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이런 것들로 미루어 보아 ST 독자들은 발로 문을 닫는 행위를 매우 유표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T 독자의 경우 손으로 닫는 행위가 더욱 섬세하거나(“more delicate”) 덜 반사적인(“less reflective”) 행위이며, 자신들도 발로 문을 자주 닫기 때문에 발로 문을 닫는 행위가 이상하거나 유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ST 독자와는 달리 손으로 닫을 때 더 의식적인 행위로 느낀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발에 비해서 팔로 닫는 것이 더 수동적(“passive”)인 성격을 드러낼 수는 있으나 ‘조용히(“calmly”)’ 닫았다는 부분과 대화 거부(“defiance”)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영혜의 상태나 성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독자(2명)는 방의 구조(layout)와 관련이 있을지는 몰라도 성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의 사실은 오역이라 하더라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실상은 독자 경험에는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스미스가 ‘팔’을 ‘발’로 오역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일부나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미스를 포함한 영어권 독자들에게는 발로 문을 닫는 것이 크게 유표적이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오독해도 이상함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넘어갔기 때문일 수 있다.

(예문 3)

다음은 기를 안 먹는 영혜의 행동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서 부정적 인식을 주게 되자 영혜의 남 (나)이 자신이 회사에 쫓겨나는 꼴을 보고 싶다고 분노한 후에 벌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떤 분노와 설득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내 손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아내가 씻고 잠옷을 걸친 뒤 안방 대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 나는 거실을 서성거리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먼 소도시에서 장모가 전화를 받았다. 아직 잠들기에는 이른 시간이었는데, 장모의 목소

리는 혼곤했다.

“다들 편안한가? 요즘 통 연락이 없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쁘게 지내느라구요. 장인어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야 늘 똑같지. 정서방 하는 일은 잘되고?”

나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영혜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장모의 음성에 걱정이 어렸다. 평소에 장모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던 둘째딸이지만, 자식은 자식인 모양이었다.

“고기를 안 먹는답니다.”

“뭐라고?”

“고기를 전혀 안 먹고 풀만 먹고 삽니다. 여러 달 됐어요.”

“그게 무슨 애긴가? 다이어트가 뭔갈 하는 건 아닐 테고.”

“글쎄, 아무리 제가 말려도 듣질 않습니다. 덕분에 저도 집에서 고기맛을 본 지 오래됐습니다.”

장모의 말문이 막혔다. 막힌 틈을 타 나는 썩기를 박았다.

“집사람 몸이 얼마나 허약해졌는지 모릅니다.”

(중략)

“... 그 애가 왜 안하던 짓을……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 ”

전화를 끊은 뒤 나는 수첩을 뒤져 처형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네 살배기 처조카 녀석이 “여보세요” 고함치며 받았다.

“엄마 좀 바꿔라.”

아내와 닮았지만 아내보다 눈이 커서 예쁜, 무엇보다 아내보다 여자다운 데가 있는 처형이 곧 수화기를 넘겨받았다.

“여보세요?”

(중략)

나는 좀전과 같은 방법으로 아내의 채식을 알려, 좀전과 똑같은 경악과 사죄, 다짐을 받아낸 뒤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Neither rage nor persuasion would succeed in moving her, and I would be unable to take matters into my own hands. After washing and putting on her night clothes she disappeared into her own room rather than getting ready to sleep in the living room as we usually did. I was left pacing up and down when I heard the phone ring: my mother-in-law.

“How is everything with you? I hadn't heard a thing for such a long

time...”

“I'm sorry about that. It's just that I've been so busy lately ... Is my father-in-law in good health?”

“Oh, nothing ever changes with us. Are things going well at work?”

I hesitated.

“I'm fine. But as for my wife ... !”

“What about Yeong-hye, what's the matter?”

Her voice was laced with worry. She had never seemed to show much of an interest in her second daughter, but I suppose one's children are one's children, after all.

“The thing is, she's stopped eating meat.”

“What did you say?”

“She's stopped eating any kind of meat at all, even fish — all she lives on is vegetables. It's been several months now.”

“What kind of talk is this? Surely you can always just tell her not to follow this diet.”

“Oh, I've told her, all right, but she still goes ahead and defies me. And what's more, she's even imposed this ridiculous diet on me — I can't remember the last time I tasted meat in this house.”

My mother-in-law was lost for words, and I used her speechlessness as an opportunity to turn the screw a little tighter.

“She's become very weak. I'm not sure exactly how serious it is ...”

...

“How can that child be so defiant? Oh, you must be ashamed of her!”

After hanging up I rifled through my notebook and dialed my sister-in-law In-hye's number.

My ears were assaulted by the sound of her young son bellowing ‘hello?’ down the line.

“Please put your mother on.”

In-hye, who quickly took the receiver from her son, resembled my wife quite closely, but her eyes were larger and prettier, and overall she was much more feminine.

‘Hello?’

...

I informed her of my wife's new-found vegetarianism in the same way

as I had just done with her mother, listened to exactly the same sequence of astonishment followed by an apology, and put down the phone after accepting her assurances.

<비평가 의견>

위 지문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다뤄졌던 부분이다. 고기를 거부한 영혜의 행동이 회사 부부 동반 모임에서 부정적인 인식을 주게 되자 영혜의 남편이 장모와 처형에게 전화를 걸어 교묘하게 아내의 만행을 이르는 부분이다. ST에서는 남편이 의도적으로 장모와 처형에게 전화를 하지만 TT에서는 남편이 우연히 장모의 전화를 받는 것으로 나와 있다. 아울러 장모는 영혜가 육식을 거부하는 데 대해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라고 하지만 TT에서는 “You must be ashamed of her”라고 번역해서 딸을 맡겨둔 사위를 어려워하는 장모의 정서와 장서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자가 의뢰한 비평가 3인도 모두 같은 의견을 개진했으며 사위와 장모의 성격이 ST와 TT 간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3]

위에서 느껴지는 나(영혜 남편)의 성격과 감정을 모두 고르세요.

- ① 가족을 동원해서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 하는 비열함 (28, 18)
- ② 가족을 동원해서라도 아내의 버릇을 고치려 하는 아내에 대한 사랑 (2, 5)
- ③ 교묘함 (24, 24)
- ④ 선함 (1, 3)
- ⑤ 기타 (4, 12)

ST 독자는 28명이 ‘비열함’을, 24명이 ‘교묘함’을 골랐고, 반면 TT 독자는 24명이 ‘교묘함’을, 18명이 ‘비열함’을 골랐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독자가 느끼는 효과는 ST와 TT 간 유사해 보인다. 기타 의견 중 통제적(“controlling”) 성격이나 이기적인(“selfish”) 성격이라는 의견도 3명이 있었다. 기타 의견 대부분은 사위가 비열하다기보다는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정서적 지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He doesn’t know what to do”, “He doesn’t understand his wife’s decision to go vegetarian and seems to be looking for sympathy from

his in-laws and some solution to what he views as a problem”, “He needs validation from others to know he is right”, “He needs support from the family”). 이는 아내를 바꾸겠다는 목적으로 늦은 저녁 때 일부러 장인어른 댁에 전화를 하는 등장인물의 행위 묘사가 TT에서 빠졌기 때문일 수도 있고 독자의 장서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독서를 한 독자와 그렇지 않은 독자 간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완독을 한 독자도 이러한 답변을 한 것으로 보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일한 지문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장서관계를 물었다.

[설문 4]

위에서 느껴지는 장모와 사위와의 관계를 묘사해 주십시오.

- ①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 함 (29, 16)
- ② 장모가 사위에게 명령함 (2, 8)
- ③ 장모와 사위와의 관계가 좋지 않음 (4, 9)
- ④ 기타 (4, 14)

ST 독자와 TT 독자 모두 장모가 사위를 어려워한다(“polite”)고 답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ST의 경우 ‘기타’를 선택한 응답자가 4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대면대면한 관계’라고 답했다. 대부분의 응답자가 ‘사위는 백년지손님’, ‘딸 가진 죄인’ 등의 속담을 언급하며 한국의 문화가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반면 TT 독자는 기타가 14명으로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를 나타냈다.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장모와 사위의 대화다’(8명, “It seems like a normal conversation between a parent and child (in-law)”), ‘장모는 딸보다 사위를 더 좋아한다’(“The narrator + the mother in law are more interested in pleasing each other than their wife/daughter”) 또는 ‘장모는 사위 편이다’(“The mother-in-law is on his side.”), ‘딸과 장모와의 사이가 좋지 않다’(5명, “She does not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er daughter”) 등의 의견을 보여 어투 등의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공손한 대화라고 보지만, 장모가 사위의 기분을 맞추려 노력하는 부문을 딸과 장모, 사위와 장모 간 친밀도의 차이로 해석하고 있었다. 한편으로는 장모가 사위에게 명령한다거나(8명), 장모와 사위가 관계가 좋지 않은 것으로 이해(9명)하는 독자도 적지 않음을 볼 때 독자들이 기본적으로

로 장서 관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이고 해당 대화가 이러한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할 때 장모의 “자네한테 면목이 없네”를 “I apologize for her behavior”나 “I’m ashamed of myself”라고 번역을 했어도 결과에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물론 이러한 추측은 검증을 요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예문 4)

다음은 영혜 자살 소동을 벌여 정신병원 입 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영혜의 엄마 화자의 장모가 면회를 와서 딸에게 무엇을 먹을 묻고 매점으로 가는 내용입니다.

“뭐 먹고 싶냐. 입가심으로 단것 좀 사올까?”

“괜찮아요.”

그러나 장모는 매점이 어디인지 나에게 묻곤 황황히 병실을 나섰다.

“What would you like to eat?”

“Shall I buy something sweet to take away the aftertaste?”

“I’m all right.”

All the same, the old woman kept on pestering me to go and find a shop. I refused to be harried into going, and eventually she left the room to find the shop herself.

<비평가 의견>

비평가 3인 모두 ST와 TT에서 등장인물의 성격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ST에서는 장모가 딸을 사랑하는 모습과 딸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사위에게 미안함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는 반면 TT에서는 장모가 사위를 성가시게 조르는 듯한 느낌이 난다고 설명했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5]

위에서 느껴지는 영혜의 엄마(장모)의 성격을 묘사해 주십시오.

- ① 딸을 사랑함 (18, 7)
- ② 고집있음 (8, 35)

③ 사위를 어려워 함 (8, 4)

④ 사위를 어려워하지 않음 (2, 6)

⑤ 기타 (8, 5)

ST 독자의 경우 ‘딸을 사랑한다’는 의견이 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집있고 사위를 어려워한다’는 의견이 각각 8명이었다. 기타 의견이 8명이었는데, ‘영혜 엄마가 사위의 눈치를 보느라 그 자리에 있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의견(6명), ‘현실을 피하고 싶다’는 의견(2명)이었다. 독자들은 영혜의 엄마를 ‘딸을 사랑하지만 소극적인 회피 유형’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TT 독자의 경우 ‘고집있음’을 선택한 응답자가 35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흥미롭게도 이러한 특징을 ST와 TT 간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느낀 것이 아니라, 영혜 엄마가 영혜에게 하는 행위를 보고 느꼈다는 것이다. 독자는 영혜 엄마의 이런 행동이 사랑의 행위라기보다는 영혜가 싫다는데도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는 모습으로 비친 것으로 보인다(“She would take ‘no’ for an answer”, “She seems to care but try to control in passive ways”). 통제를 좋아 하는 성격 외에도 딸에게 사회 기준(“social norm”)을 강요하는 사람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딸을 사랑한다는 의견(“She’s trying to help”)은 7명에 불과했다. ST 지문이 TT에 그대로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T 독자는 ST 독자와 달리 느낀다는 점이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위를 어려워하지 않는다는 의견(6명)에 대한 이유로는 장모가 사위를 대하는 모습에서 사용된 어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pester”, “harried”). 기타 의견으로 ‘영혜의 엄마는 딸에 대한 측은지심이 없다’(2명. “She is not motivated by love or care for her daughter”, “She is not emphatic.”)는 답변이 있었다. 오역으로 인해 독자는 영혜의 엄마를 적극적이고 사회적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관찰시키는 강한 엄마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예문 3] 전화 대화에서 나온 장모의 성격과 일치하는 것으로, 스미스는 장모를 이러한 성격으로 해석하고 일관성을 지켜 번역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독자 의견 중 “Who’s speaking to whom?”이라는 질문이 있었다. 설문 내지시문에서 영혜 엄마가 영혜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를 헛갈려하는 독자가 있었다. 화자를 헛갈려 하는 독자는 다른 예문에서도 일

부 찾아볼 수 있었다. 영어의 경우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는 누가 말했는지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음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예문 5]

다음은 처제에게 성욕을 품고 있는 화자(그) 처제에 나체 영상 작품을 찍도록 하 위해 처제와 만나 얘기하는 분입니다.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점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는 물었다.

“아이스크림 좋아해?”

그녀는 새침한 애인처럼 반쯤 웃었다. 둘은 아이스크림점의 창가 자리에 앉았다.

나무스푼으로 아이스크림을 떠 혀로 핥는 그녀를 그는 말없이 건너다보았다.

마치 그녀의 혀와 그의 몸이 전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듯, 그녀의 혀끝이 내밀어질 때마다 전기자극을 받는 것처럼 움찔움찔 떨곤 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때 그는 생각했다. 방법은 하나뿐인지도 모른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욕망을 실현하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내 부탁은……”

그녀는 혀끝에 흰 아이스크림을 묻힌 채 말꼬리미 눈을 떴다. (중략)

그녀는 마지막 스푼을 입에 넣고 있었다. 핏기 없는 입술가에 흰 크림이 묻었다.

When he spotted a sign for a chain cafe, he asked her, “Do you like shaved ice?” she gave a half smile, looking for all the world like a girl on a date who doesn’t want to seem too easily pleased. The two of them took a seat by the window.

He looked across at her in silence as she mixed red bean into the shaved ice slush and licked it from the tip of her wooden spoon. As if there was a wire linking her tongue with his body, every time that little pink tip darted out he found himself flinching as though from an electric shock. And he thought to himself that perhaps there was only one way out. That perhaps the only way out of this hell of desire would be to make those images into a reality.

“So, the favour … .”

She fixed him with her glance, a dot of red bean on the tip of her

tongue. ... He looked up to find her spooning the last of her own shaved ice into her mouth, its redness smeared over her bloodless lips.

<비평가 의견>

이 부분은 번역자 스미스가 의도적으로 소품의 종류와 색깔에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다. “아이스크림”을 “shaved ice”로 바꾸고 혀끝을 “little pink tip”으로, “핏기없는 입술에 묻은 흰 크림”은 “red bean”으로 변경했다. 비평가 2명은 TT가 더 선정적이라고 답했다. ST에서는 처제와 ‘흰’ 색깔을 함께 사용해 처제가 순수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한 것 같으나 TT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사라졌다고 답했다. 의견을 유보한 비평가 1인은 흰색이 순수함을 나타내는지를 모르겠으며 흰색이 남성의 정액을 상징한다면 오히려 ST가 더 선정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이라 답했다. 아래는 설문 결과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6]

밑줄친 영혜의 행동에서 선정성이 느껴지나요? 영혜의 의도와는 상관없습니다.

① 그렇다 (12, 30)

② 아니다 (19, 6)

③ 기타 (3, 1)

ST 독자의 경우 선정적이라고 한 의견이 12명, 아니라고 한 의견이 19명이었고 기타는 4명이었다. 그러나 선정적이라고 한 경우에도 화자의 욕망이 투영되어 선정성이 느껴지는 것이지 영혜가 전혀 성적의 의도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일부 응답자는 “영혜는 그냥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것뿐이다”, “아이스크림은 원래 그렇게 먹는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TT 독자의 경우 선정적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무려 30명이었다. 대부분이 혀와 핥는 동작(“tongue”, “licking”, “pink tip darting out”), 색깔(“pink tip”, “red”), 나무스푼(“wooden spoon”)을 언급했다. 일부 응답자는 little pink tip은 여성의 생식기를 뜻하며, 나무스푼은 남근을 상징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묘사가 혀와 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성적 이미지와 연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부 ST 독자도 동일하게 답했다). 아울러 ST 독자와 TT 독자 일부(각 2

명, 5명)는 이전 단락(“그녀는 새침한 애인처럼 반쯤 웃었다”)에 이미 성적 암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전형적인 장면임을 언급한 독자도 있었다. “성적 긴장감을 연출할 때 소설, 영화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묘사이다”라고 응답한 ST 독자가 있었고, TT 독자의 경우도 “the metaphors are somewhat sterile”, “often seen, but not attractive” 등의 답변이 있었다. 작가와 번역자는 독자들에게 전형적으로 느껴지는 장면을 사용해 전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단, TT에서는 ST 독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나무주걱의 상징성’을 살리고 혀를 ‘little pink tip’으로 부각하는 등 전형적 상징을 더욱 부각해 독자들이 해당 장면을 상대적으로 더 선정적으로 느끼고 있다. 여기서 또다시 고려해야 할 문제가 제기된다. 아이스크림을 붉은 색이 도는 팥빙수로 바꾼 점은 선정성의 강도를 높이려는 의도적 행위임을 알 수 있으나, 오히려 ST 그대로 번역한 ‘나무주걱’ 부분에서 ST 독자들은 느끼지 못하는 선정성을 TT 독자들이 느끼게 된 것이다. 이는 그대로 번역하는 경우에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숨은 상징이 가동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번역 비평 시 ST의 변경, 삭제 등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유지 부분도 깊은 고려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2.2 의역 및 오역: 삭제와 명시화

아래 예문을 보자. (점선으로 표기한 부분은 다른 언어본에서는 삭제된 부분을 나타낸다. 실선과 마찬가지로 실제 설문지에는 표시되지 않았다.)

[예문 6]

음 슬입 다) 브레 얇은 를 른 램
 알까 살피는 모습), (는 해 자살 입 시킨
 공 목 탕 그 피 몸 씻 자신을 묘사 습 .

(가) 의심할 바 없이, 그녀는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

7) 지문이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영어 설문의 경우 다음과 같이 문구를 달리했다.

Passage A describes the scene where the narrator, the husband, was aware of his wife's not wearing a bra at a company gathering.

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나는 전무 부인과 시선이 마주쳤다. 태연을 가장한 그녀의 눈이 호기심과 이연함, 약간의 주저가 어린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나는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나) 검게 굳은 피가 샤워기의 미지근한 물줄기에 씻겨나갔다. 의심을 품은 시선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구역질이 났다. 이 모든 상황이 정그러웠다. 현실이 아닌 것 같았다.

A. Without a doubt, she'd come out without bra. When the other guests surreptitiously craned their necks, no doubt wanting to be sure that they really were seeing what they thought they were, the eyes of the executive directors wife met mine. Feigning composure, I registered the curiosity, astonishment, and contempt which were revealed in turn in her eyes.

B. I washed off the black congealed blood under the shower's lukewarm stream of water. I looked at myself in the mirror, frowning. The whole affair made my flesh crawl. It just didn't seem real.

<비평가 의견>

[예문 6]은 영혜의 남편(정서방)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는 부분이다. ST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나는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뺨이 상기되는 것을 느꼈다”, “의심을 품은 시선들이 나를 흘끔거렸다” 등으로 해당 인물이 주위 시선에 매우 신경을 쓰는 성격임을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그러나 TT에서는 해당 부분이 모두 빠졌다. 비평가 3인 모두 ST와 TT에서 드러난 성격에 차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7]

위에서 느껴지는 영혜의 남편(나)의 성격과 심리 상태를 묘사해주세요.

- 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함 (35, 35)
- ② 창피함 (28, 29)
- ③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싫어함 (32, 25)
- ④ 기타 (3, 8)

흥미롭게도 ST 독자와 TT 독자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함’이라는

보기를 고른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ST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것이 명시화되어 있으나 TT에는 해당 부분이 생략되어 있음에도 응답자들은 ‘화자(영혜의 남편)가 손님들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The fact that the narrator describes the guests’ reactions”)에서 그런 성격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인이 괴를 흘린 상황에서 저런 말을 한 것으로 보아 그렇게 느껴진다’(“He cares more about how others view him than his wife.”)는 설명이 있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싫어함’을 선택한 응답자도 25명이었는데, TT의 경우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면서 얼굴을 찡그렸다는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싫어하고 있음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볼 때 독자는 명시적인 표현이 없어도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서 등장인물이 하는 ‘행동’을 보며 감정을 추측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문 7)

영혜가 정신병 병실 서 라지자 남편(나) 그 를 찾아 나 고 병 들에 서 의를 벗 벤치에 앉아 새를 움켜쥐고 있 영혜를 발견함 다. 아 는 그 후속 장 입니다.

뒤를 돌아보자, 심각한 얼굴의 남자 간호사와 중년의 경비가 이편으로 뛰어오는 것이 보였다. 나는 마치 타인인 듯, 구경꾼들 중의 한 사람인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지쳐 보이는 아내의 얼굴을, 루주가 함부로 번진 듯 피에 젖은 입술을 보았다. 물끄러미 구경꾼들을 바라보던, 물을 머금은 듯 번쩍거리는 그녀의 눈이 나와 마주쳤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고 나는 생각했다.

When I turned to look over my shoulder, a male nurse and a middle-aged guard could be seen hurrying over, their faces grave. I looked at my wife’s exhausted face, her lips stained with blood like clumsily applied lipstick. Her eyes, which had been staring fixedly at the gathered audience, met mine. They glittered, as though filled with water. I thought to myself: I do not know that woman.

<비평가 의견>

ST에서 밑줄친 문장은 TT에서 사라졌다. 위 지문에 대해 비평가 2인은 ST

와 TT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1인은 차이가 없다고 답했다. 차이가 있다고 답한 2인은 일반적인 기준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아내를 모른 척하고 싶은 남편의 감정이 드러나는 부분으로서, 원작자가 “타인”이나 “구경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여성의 타자화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자 남편이 아내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8)

영혜에 대해 영혜의 남편이 가지는 성격/태도를 설명하십시오.

- ① 아내를 사랑하지만 절망함 (6, 6)
- ②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음 (17, 8)
- ③ 아내를 창피해 함 (21, 22)
- ④ 아내를 모른 척하고 싶음 (27, 9)
- ⑤ 기타 (3, 23)

ST 독자의 경우, 아내를 모른 척하고 싶다는 의견이 27명, 아내를 창피해한다는 의견이 22명,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의견이 17명이었다. 반면 TT 독자는 기타가 23명, 아내를 창피해한다는 의견이 22명이었으며, 아내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의견은 8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 대부분은 그녀가 낯설다(“She has become a stranger to him”), 어째야 할지 모르겠다는 의견(“He is lost”, “He does not understand what’s going on with his wife and sad”)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삭제로 인한 요인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 ST 독자의 경우, ‘타인을 지켜보듯 아내의 얼굴을 바라본 뒤,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고 생각함으로써 그 자리를 피하려 하는 게 느껴진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볼 때 독자들은 “나는 저 여자를 모른다”라는 화자의 언급이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를 ‘모른 척하고 싶다’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TT에서는 해당 부분이 빠져 “I do not know the woman”을 심층적으로 해석할만한 근거가 사라져 좀 더 표면적인 해석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의 [예문 6]에서 구체적인 감정 표현이 없었음에도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보고 감정을 추론한 것과 일맥상통하다 할 수 있다. 즉, 등장인물의 행동이 빠짐으로써 독자들이 감정을 추론할 수

있는 단서가 줄어들어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을 표면적으로밖에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문 8]
다음은 화자(그)가 처 를 상상하며 자위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성기가 부풀어 오른 것이 아내 때문이 아니란 것도 알고 있었다.
오래전 아내와 함께 들렀던 처제의 자취방을, 거기 웅크려 누워 있을 처제를, 그보다 오래전 피투성이로 그의 등에 업혔던 처제의 몸을, 고스란히 전해져왔던 가슴과 엉덩이의 감촉을, 그리고 바지 한 겹만 벗기면 낙인처럼 푸르게 찍혀 있을 몽고반점을 상상한 순간, 온몸의 피가 거기 모였던 것이다.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 그는 선 채로 자위를 했다. 샤워기 아래로 뛰어들어 정액을 씻어내며 그는 웃음도 울음도 아닌 신음을 냈다. 물이 너무 차가웠기 때문이었다.

But he also knew that his penis's sudden rigidity was nothing to do with her. He'd pictured to himself his sister-in-law's rented studio apartment, the one she'd shared with his wife back when they were young, pictured her curled up there on the bed, then switched to remembering how it had felt to carry her on his back, her body pressed up against his and staining his clothes with her blood, the feel of her chest and buttocks, imagined himself pulling down her trousers just enough to reveal the blue brand of the Mongolian mark.
He stood there and masturbated. A moan escaped from between his lips, not quite laughter and not quite a sob. The shock of the too cold water.

<비평가 의견>

위 [예문 8]은 영혜의 형부가 영혜에 대한 가지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ST의 밑줄친 부분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가 TT에서는 번역되지 않았다. 위 지문에 대해 비평가 3인 모두 ST에서 느껴지는 환멸감이 TT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물컹물컹한 환멸을 씹으며”는 화자가 일반적인 사회 통념과 기준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내는 대목으로 의미가 있는 장면이며, 이 부분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화자의 성격이 완전하게 묘사가 되지 않았다 설명했다.

<독자 설문 결과>

- [설문 9]
위에서 느껴지는 화자(그)의 감정을 자세히 묘사해 주세요.
① 처제에 대한 성욕 (31, 31)
②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환멸감 (22, 18)
③ 신체적 고통 (5, 5)
④ 기타 (0, 4)

흥미롭게도 ST와 TT 독자 모두 자신의 감정에 대한 환멸감(각각 22명, 18명)을 언급했다. 처제에 대한 성욕은 ST, TT 모두 31명이 답했다. 영어 독자 중 환멸감을 선택한 사람들은 TT의 “A moan escaped from between his lips, not quite laughter and not quite a sob.” 부분이 환멸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not laughter and not quite a sob suggests self-loathing”, “not a pleasurable experience for him”, “He seems to be filled with disgust with his own thoughts”, “He has sexual desire for his sister-in-law, but his ambivalent ‘moan’ suggests this is something he is not necessarily comfortable with”). 이로써 독자는 명시적 내용이 없더라도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말을 바탕으로 정황에서 추리를 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문 9]
다음은 정신병 에 입원한 동생 영혜에 대해 언니 인혜가 느끼는 감정 표현한 부분입니다. (참 로 인혜의 남편은 영 외 정사를 벌였고, 니 인혜가 이를 발견했습니다. 인 는 편과 혼했고, 영혜는 나무가 되겠 며 음 섭취를 거부해 죽어가고 있습 다. 가족 중 혜만이 영혜 돌보고 있습 다)

그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의사에게 표했던 재발에 대한 우려는 단지 표면적인 이유이며, 영혜를 가까이 둔다는 사실 자체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는 것을, 그 애가 상기시키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없었다는 것을. 사실은, 그 애를 은밀히 미워했다는 것을. 이 진창의 삶을 그녀에게 남겨두고 혼자서 경계 저편으로 건너간 동생의 정신을, 그 무책임을 용서할 수 없었다는 것을.

Though the ostensible reason for her not having wanted Yeong-hye to be discharged, the reason that she gave the doctor, was this worry about a possible relapse, now she was able to admit to herself what had really been going on. She was no longer able to cope with all that her sister reminded her of. She'd been unable to forgive her for soaring alone over a boundary she herself could never bring herself to cross, unable to forgive that magnificent irresponsibility that had enabled Yeong-hye to shuck off social constraints and leave her behind, still a prisoner.

<비평가 의견>

[예문 9]는 인혜가 영혜에 가지는 감정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ST에서 점선으로 밑줄친 부분이 TT에서 생략되었다. 반면 실선 부분은 TT에서 더욱 명시화가 되었다. “진창”, “경계 저 편으로 건너간” 부분을 “a prisoner”, “shook off social constraints”, “a boundary she herself could never bring herself to cross” 등으로 강조하고 구체화했다. [예문 9]에 대해 비평가 중 한 명은 “unable to forgive her”가 ‘미움’이라는 감정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 지문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큰 차이가 없다고 답했고, 두 명은 “은밀히 미워했다”는 감정이 “unable to forgive her” 라는 표현으로 대체될 수 없다고 답하며 미움의 감정이 TT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독자 설문 결과>

[설문 10]

위에서 영혜에 대해 인혜가 느끼는 감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

두 골라주세요.

- ① 감당할 수 없음 (23, 15)
- ② 곁에 두고 싶지 않음 (22, 18)
- ③ 미움 (26, 6)
- ④ 분노 (24, 12)
- ⑤ 사랑 (17, 8)
- ⑥ 기타 (6, 19)

ST 독자의 경우 ‘미움’(26명), ‘분노’(24명), ‘감당할 수 없음’(23명), ‘사랑’(17명)이 골고루 나왔다. 반면, TT 독자의 경우 ‘기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그 다음이 ‘곁에 두고 싶지 않음’(18명), ‘감당할 수 없음’(15명)의 순이었다. ST 독자에게서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인 ‘미움(hatred)’은 6명에 불과했다. 그런데 19명이 선택한 기타 답변을 살펴보면 대부분(18명)이 질투와 관련된 내용(“In-hye is jealous of her sister and wishes that she could be as free as her sister”, “In-hye is jealous of her sister’s rebellion.”, “She resents her sister’s ‘freedom’”)이고 한 명은 고통(“pain”)이라 답했다. ST 독자가 선택한 ‘미움’이라는 감정이 인혜는 ‘진창’에 나두고 영혜만 ‘경계’를 넘어간 데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이 미움은 질투의 감정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TT 독자가 선택한 질투라는 감정과 한국어의 미움이라는 감정과는 큰 거리가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TT에서 번역이 생략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에게 해당 감정이 전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그러한 감정을 파악한 근거로 영어 지문의 마지막 문장을 든다. 즉, 인혜는 넘고 싶지만 넘지 못하는 경계를 넘은 영혜(“her soaring alone over a boundary she herself could never bring herself to cross”), 사회적 제약을 떨치고 인혜만(사회의) 감옥에 남기고 간 영혜(“Yeong-hye to shuck off social constraints and leave her behind, still a prisoner”)를 언급하는 부분이다. TT에서 ST보다 훨씬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기 때문에 독자가 영혜와 인혜의 대비되는 처지를 파악하고 해당 감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문장 내에 “unable to forgive that magnificent irresponsibility”라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바로 ‘hatred’라는 감정과 연결시킨 사람은 6명밖에 없고 오히려 사랑을 택한 응답자가 8명으로 더 많았다는 것도 궤를 같이 한다. 『채식주의자』의 삭제 전략을 살펴본 연구(이지민 2018)에서 삭제된 부분의 보상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예문에서 번역이 생략된 부분에 대해 독자 경험 측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시적 감정 설명 대신 명시적 상황 묘사를 통해 독자가 느끼는 감정의 보상이 이루어져서 ST와 TT 효과 전달 측면에서 등가를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기타 독자 설문 결과>

독자들에게 한국 문학의 영어 번역에서 어느 정도의 차이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 본 결과, 원문의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그대로(이국화) 번역되

어야 한다는 응답이 각각 4명과 0명, 원문의 모든 내용이 빠짐없이 번역되되 서양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국화되어야 한다는 답변이 각각 15명과 20명, 원문의 모든 내용이 조금 빠지거나 바뀌어도 원문의 주제와 효과만 제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의견이 각각 14명과 16명이었다. 원문의 내용이 많이 생략 변경되고 내용이 추가되어도 원문의 주제와 효과만 제대로 전달하면 된다는 의견은 각각 1명, 기타는 각각 2명, 3명이었다. 기타 의견을 살펴보면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모두 내용은 빠짐없되 이국화와 자국화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종합해 보면 한국어와 영어 독자 모두 한국어 문학을 영어로 번역할 시 원문 정보는 주제와 효과의 전달에 무리없이 되도록 충실히 전달하되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의 변경(자국화)을 허용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스미스의 *The Vegetarian* 번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주변 인물의 외모와 구체적인 행동에 관한 서술의 삭제(이지민 2018)임을 고려해 원문 생략이나 변경이 허용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한국어 독자 17명, 영어 독자 20명)를 대상으로 보조 등장인물 자체 또는 이들의 대사 또는 이들에 대한 설명의 현저한 삭제를 허용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이를 허용하는 응답자는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 각 2명, 3명이었고, 안 된다는 응답자가 각각 12명, 1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응답자들은 보조 등장인물도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의미가 사라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고, 기타 의견의 경우 각 3명, 6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조건부 삭제를 제시했다. 즉 줄거리나 주제 구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절대 삭제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한국어 독자나 영어 독자 모두 인물 번역도 원문 내용에 대한 충실성을 중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론

본고에서는 문학 번역 비평의 범위를 독자 수준으로까지 확장해 한국어 독자와 영어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한강의 『채식주의자』(ST)와 데보라 스미스의 *The Vegetarian*(TT)을 대상으로 차이를 파악한 후 인물의 성격과

감정과 관련해 선행 연구에서 자주 논의되는 부분을 포함해 명백한 의역이거나 오역인지 의역인지 불분명한 부분을 파악해 전문 비평가의 의견을 종합하고 설문지를 작성해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ST 독자)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독자(TT 독자)를 대상으로 각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ST 독자는 총 35명, TT 독자는 총 37명이 참가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선행연구와 기존 비평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번역자의 의역으로 인해 독자들이 느끼는 영혜의 성격, 장모의 성격은 ST 독자와 TT 독자 간 차이가 있었다. ST 독자에 비해 TT 독자들은 영혜는 좀 더 이성(理性)적으로 느꼈고, 장모는 자기중심적이고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자가 한국의 장서관계에 대한 배경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오역·의역이 이러한 효과를 증폭하는데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독자들은 텍스트에 명시된 감정 외에도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대사, 당시 상황을 기반으로 등장인물이 느낄 감정을 유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T에서 명시된 감정이 TT에서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행동과 상황이 모두 번역된 경우에는 독자들이 해당 감정이나 성격을 추리해 내지만, 반대로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상황이 삭제된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번역 시 사건 및 등장인물의 대사와 행동은 빠짐없이 번역하는 것이 정확한 정서와 주제를 전달하는데 유리함을 시사한다.

셋째, 번역 비평가들이 심각한 번역 오류라고 지적한 것들이 정작 TT 독자들에게는 유표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도 있었다. ST에서는 영혜가 팔로 문을 닫았는데 TT에서는 발로 닫았다고 번역해서 영혜의 성격이 달라졌다는 비평이 있었으나 영어권 독자들은 의외로 ‘조용히 닫았다’는 부분을 핵심으로 보고 팔로 닫으나 발로 닫으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번역 비평 시 해당 언어권 독자의 시각에서 번역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ST 독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배경지식이 TT 독자들에게는 없기 때문에 TT 독자들은 동일한 TT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인상을 받기도 하고, ST에서는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는 부분을 유표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예문 3]의 전화 대화처럼 ST 독자들에게는 명확한 장서 관계를 TT 독자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거나 [예문 5]에서 볼 수 있듯이 ST에서 성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나무스푼을 TT 독자들은 상징성있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이를 고려할 때 ST와 TT에 포함된 ‘정보’의 차이점, 즉, 텍스트의 변경, 삭제, 추가에 집중하는 현재 번역 비평을 독자에게 전달될 ‘효과’의 차이점 분석으로 시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ST를 변형 없이 그대로 빠짐없이 번역한다고 해서 TT에서도 항상 동일한 정서가 전달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자에게 전달될 효과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다.

다섯째, 영어권 독자들이 일부이기는 하나 화자를 엉뚱한 사람으로 착각하기도 하고 누가 말했는지 파악을 힘들어 하는 경우가 있었다. 소수 의견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인용의 경우 한국어에서는 잘 밝히지 않는 화자를 영어 번역에서는 밝힐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직접 인용이 있을 때마다 누가 말했는지를 설명하는 영어권 관습을 따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독자들은 한영 번역 시 한국어와 영어 독자 모두 내용의 충분성에서는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되 이해를 우선시해 자국화를 선호함을 알 수 있다. 문학은 작가의 미적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ST 중심으로 이국화해 번역해야 한다는 일부 번역 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시점임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ST 독자의 반응과 TT 독자의 반응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ST 독자 중심의 선택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TT 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타 의견이 다수 의견을 차지한 경우가 있었다. 향후에는 영어독자를 대상으로 좀 더 깊이있는 파일럿 스터디를 수행해 선택지를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문학 비평 설문이므로 단순한 설문의 경우에도 제공해야 할 정보가 많고 독자의 의견을 주관식으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설문 시간이 길어져 더 심층적인 설문을 하지 못했다. 아울러 설문 대상의 양적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므로 해당 도서를 완전히 읽은 독자를 대상으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설문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를 통해 영어 독자와 한국어 독자의 반응을 직접 비교했으며 독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 다양하고 더 심도있는 독자 반응 연구가 수행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김도훈 (2005) 「어린이 그림책 번역에 있어서의 수용자 반응의 중요성: 괴물들이 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언어과학』 12(3): 26-39.
- 김번 (2017) 「『채식주의자』와 *The Vegetarian*: 원작과 번역의 경계」, 『영미문학연구』 32: 5-34.
- 김영신 (2016) 「이국화인가 자국화인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번역을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37: 37-55.
- 원중화 (2017) 「독자 반응을 통한 한·영 간 색채의식 차이 연구」, 『번역학연구』 18(5): 111-141.
- 이강선 (2016) 「고택락에서 저택락으로: 두 권의 채식주의자」, 『겨레어문학』 57: 277-312.
- 이인규 (2017) 「『채식주의자』에 대한 데보라 스미스의 영어번역 어떻게 볼 것인가?」, 『번역학연구』 18(3): 173-205.
- 이지민 (2016) 「한강의 『채식주의자』 영역본에 나타난 번역자 전략 연구: 이중 시점과 내포작가 관점에서」, 『통역과 번역』 18: 137-162.
- 이지민 (2018) 「『채식주의자』 영역본 *The Vegetarian*의 삭제 전략 연구」, 『통역학연구』 22(1): 179-207.
- 조재룡 (2017) 「번역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문학동네』 90(1): 1-21.
- 한위성 (2017) 「독자반응이론에서 본 문학 번역의 의미 구성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57: 277-294.
- Aveling, Harry (2003). ‘Mistakes in Translation: A Functional Approach’, *English Language Teaching & Literature* 3(1): 1-12.
- Beach, Richard, & Hynds, Susan (1996). ‘Research on Response to Literature’, In R. Barr, M. L. Kamil, P.B. Mosenthal & P. D. Peraon (Eds.), *Handbook of Reading Research* (vol2). New Jerse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453-489.
- Chatman, Seymour (1978) *Story and Discourse: Narrative Structure in Fiction and Film*. Retrieved Aug. 23 from <https://ia801901.us.archive.org/7/items/StoryAndDiscourseNarrativeStructureInFictionAndFilm/chatman.seym>

our_story.and.discourse_narrative.structure.in.fiction.and.film1.pdf.

- Chesterman, Andrew (1997) *Memes of Translation*, Amsterdam and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arvey, William J. (1968) *Character and the Nove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Jacobson, Roman (1959/2000)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in L. Venuti (ed.), *The Translation Studies Reader*.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13-18.
- Landers, Clifford E. (2001) *Literary Translation, A Practical Guide*.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Munday, Jeremy (2008)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New York: Routledge.
- Newmark, Peter (1981) *Approaches to Translation*, Oxford and New York: Pergamon.
- Nida, Eugene A. (1964) *Toward a Science of Translating*, Leiden: E. J. Brill.
- Lee, Sang-Bin (2011) *Fictional Characterization and Reader Response: A Comparative Transitivity Analysis of Yi Sang's Nalgae and its Translations and a Reader-response Questionnaire Survey*, Ph. D. Dissertation, Seou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Iser, Wolfgang (1978). *The Act of Reading: A Theory of an Aesthetic Respons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Fish, Stanley (1970) 'Literature in the Reader: Affective Stylistics', *New Literary History* 2(1): 123-162.

<기타 자료>

신준봉 (2017. 1. 10) 「없는 문장 넣고 원문 빼고...『채식주의자』 번역 논란. 『중앙일보』.

<분석 대상 도서>

한강 (2007). 『채식주의자』, 파주: 창비.

Smith, D. (2015). *The Vegetarian*. York: Hogarth (원전: 한강 (2007). 『채식주의자』, 파주: 창비.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f Reader Response
to Han Kang's *The Vegetarian* and
Deborah Smith's English Translation: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s on Characterization**

Lee, Jimin
(Keimyung University)

Deborah Smith's English translation of Han Kang's *The Vegetarian* has been criticized for free translation and being rife with errors. However, very little study has been done on how her free translations are received by English readers. This paper examines how English readers respond to her translation in comparison with how Korean readers respond to the original Korean novel. A survey was conducted on 37 English readers and 35 Korean readers, an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English readers indeed perceive Young-hye, her mothe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Yeong-hye's mother and husband differently from the way the Korean readers do. Second, English readers infer the emotions of the characters by considering the ways in which the characters act and talk and the situation they are in even if some direct descriptions of emotions are deleted in the TT. And, third, literal translation without taking into account cultural differences gives the reader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the dynamics among the characters and symbols.

▶ Key Words: literary translation, reader response, survey, free translation, characterization

▶ 주제어: 문학번역, 독자반응, 설문조사, 의역·오역, 인물 성격 구현

이지민

계명대학교 대학원 통번역학과 조교수

ke9836@hanmail.net

관심분야: 문학 번역, 네티즌 번역,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18년 8월 13일

심사완료일: 2018년 9월 10일

게재확정일: 2018년 9월 27일